## 평화의 물결 넘쳐흐른 광주…후쿠오카서 만나요

빛고을을 뜨겁게 달궜던 2019 FINA광주세계수영선수 권 대회가 28일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평화공존을 통한 화합의 물결'을 내세운 이번 대회의 대미는 국립아시문 화전당 예술극장에서 열린 폐회식 문화공연이 장식했다.

'아름다운 순환' (Circle of Life)을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세계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무대로 서막을 연 뒤 차기 대회 개최도시 일본 후쿠오카 소개 영상과 다채로운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남도의 계절미와 인간의 생애주기 를 아우른 옴니버스 판타지극으로 진행된 공연의 주요 장 면을 지면에 싣는다.

/특별취재단=글·사진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봄:향연 봄 '향연'이라는 주제로 새 생명의 기운을 몰고 온 남도의 기운을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을:염원 열매가 무르익는 시기, 남도의 모습을 춤으로 승화한 작품이 가을 염원을 주제로 공연되고 있다.



아름다운 순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지막 날인 28일. 광주 동구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여는 공연으로 순환하는 계절의 의미와 삶의 조화를 상징적인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름:열정 여름 '열정'이라는 주제로 남도의 열정, 꿈의 가치를 춤으로 표현하고 있다.



**겨울: 조화** 겨울 '조화' 라는 주제로 안숙선 명창과 국악인들이 아름다운 순환의 길이 열리며 새봄을 맞이함을 노래하고 있다.



후**쿠오카 전통공연** 2021년 차기 세계수영대회 개최지인 일본 후쿠오카 의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